맞춤형 낮춤

(눅18:9-14)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맞춤형 낮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맞춤형 낮춤'
마지막 구절에 유의한 것이지요,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이 낮춤과 높임의 문제가 단순히 인격적인 어떤 덕의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춘다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인격의 성숙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덕목의 덕목이 아니라, '의롭게 된다' 칭의를 받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신칭의(以信稱義)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얘기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맞춤이라는 단어를 연합을 시킵니다, '맞춤형 낮춤'

맞춤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기성복과 맞춤양복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기성복이라는 것은, 사이즈를 몇 개로 나누어서 일반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나 맞춤양복이라는 것은 내 키, 내 다리길이, 내 허리 사이즈, 나 한 사람에게 맞춘 것이 맞춤형입니다.

요새 맞춤형 음식이 있다 그러지요?

앞으로 맞춤형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할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춤형 음식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감기 환자들에게 맞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 환자들에게 맞는 음식.

그 이전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 건강과 내 몸과 내 컨디션 상태에 맞추는 음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손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지금 열이 납니다, 그리고 자꾸 미식거립니다'

'아! 그러면은 흰죽에 물김치를 좀 드시지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음식을 준다, 내 온다, 서비스 한다, 이게 맞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잊혀 져 버리면 아주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유' 그러면, 우리는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적 특성으로 압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온유하던 후천적으로 온유한 체질을 얻게 되었든지 간에 온유한 사람이면, A B C D 라고 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사건을 만나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런 온유를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어떤 온유나? 맞춤형 온유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향한 온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 신앙적 인격의 체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해서만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걸 보면, 사자 새끼들이 어미사자와 같이 놀 때에, 새끼 사자들이 어미 사자의 얼굴을 발로 막 할퀍니다.
그래도 화내는 법이 없고, 그저~ 어미 사자가 그 새끼 사자들을 혀로 핥아줍니다.
그걸 보고, '아~ 어미사자가 굉장히 온유하구나!'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사자는 수사자가 사냥하지 않습니다, 이 암사자들이 다 사냥을 하면서 수사자도 먹여 살리고 새끼 사자도 먹여 살립니다.
어미사자처럼 포악한 동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한 없이 온유합니다.
이게 맞춤형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말할 수 있는 온유하심입니까?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바리새인이지, 요즘으로 말하면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회지도층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 이들에 대해 최소한 존경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을 채찍을 들어서 다 뒤집어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엎고 난리를 치는데, 어디가 온유하십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맞춤형 온유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온유하심을 갖고 대하셨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을 보면 야단을 치시고, 당신이 좋아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쫓아다닌 사람들에게는 야박하게 '다~ 물러가라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쫓아 왔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면박을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온유는, 일반화된 온유가 아닙니다, 체질적 온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낮춤이라고 하는 말도, 일반적인 덕목으로서의 겸손을 우리

가 생각하면 오해라 이겁니다.
모~든 대상을 향하여 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맞춤형 낮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어떻게 연결 돼있냐 하면,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자기를 높이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게 자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 뭘까요? 남을 의롭게 여깁니까?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것은 뭡니까? 남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건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만을 향한 낮춤을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낮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고 대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낮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낮춘다고 하는 이 낮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본문에 보면, '자기를 의롭게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타인이 의롭다고 믿어주는 게 낮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된 이해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돼요, 이러면 큰 오해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가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왕이에요, 왕은 아무나 됩니까? 최소한의 존경과 예는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왕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자기가 왕보다 더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높일 때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희 씨보다 낫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희 씨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만입니까? 허풍입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롭게 여긴다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멸시한다는 구절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돼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일까?
이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인가?
교리적으론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걸 안다,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것을 내가 교리적으론 알겠는데, 그럼 실천적으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롭게 믿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냐? 맞춤형 낮춤을 실시하는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1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정답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게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오늘 본문 속으로 가져와 보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자,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정답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와서, 저~ 뒤에 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토색하거나 뭐 간음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경건한 생활의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십일조 생활을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를 한다.
자! 이게 어떤 태도이냐?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보면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들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한대요, 선생님께서 앞에서 답을 불러주고. 지금 이 상황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께서 답을 불러 줄 때, 나한테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답을 받아 적으면서, 자기가 적은 답과 비교하면서 채점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학생이, MP3를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답을 불러주는 걸 듣지 않으면서, 자기 시험지에 쓴 답을 기준으로 해서 짝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험지가 답안입니다, 정답안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험지를 보면서, 옆의 친구의 1번 문제 채점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는 얘기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만을 향해 있지, 옆의 사람이나 내게 주어진 일이나 사건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옆의 사람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자! 자식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이때 내가 자식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면, 내게 정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낮추는 방법은, 나와 자식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채

고, 이 자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정답인 것을 알고, 정답을 부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정답을 말할 때, 그 자식에 대해서 할 말, 자식에 대해서 할 행동을 하나님이 불러준 정답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없이 한없이 온유해 보이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처럼 고집스럽고 완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할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일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붙잡아다가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때립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리 쳐도, 아주 고집스럽게 아주 완악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명을 거역하는 겁니다.
산헤드린이 누구입니까? 그 유대사회를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통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자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로마의 힘과 권력으로 찍어눌러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온유합니까? 이게 어떻게 겸손한 자들입니까?
로마 전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를 결국 뒤집어엎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 겸손함이라는 말을 그냥~ 기독교의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든지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을 갖다 찍어 바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에서만, 신앙적 덕목과 체질과 성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 모든 사건에 대한 관계는, 다~ 하나님 앞에 낮췄을 때에,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정답대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때, 기독교가 로마의 압제를 뚫고 나갈 수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를 뚫고 예수를 전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온유함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의 기도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와 부부로서 가정을 이끌어 갈 때에 아내에 대해서 한 모~든 말이 다~ 오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답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식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죄인이라고 욕하는 저 바리새인 저런 사람들을 볼 때, 너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이러면서 원망도 하고 비난도 했는데, 원망의 감정 비난의 마음 이 모~든 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생각 모~든 것, 사건을 대할 때의 마음, 일을 대할 때의 마음,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 어느 것도 정답인 상태의 마음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었는데, 정답이신 하나님을 듣지 않고 살았던 24시간 중에 23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은 거예요, 내가 정답인 것처럼.
그것을 회개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고 생활 속에서 나가서, 이 세리가 어떻게 유효하도록 하나님이 정답 되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또 다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십자가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마음이 있고 마음 안쪽에 천국이 있습니다.
마음 바깥쪽으로 몸이 있고, 몸을 접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몸으로 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대해서, 내게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이 없는데도 일이 부딪쳐지게 되면 내가 생각하게 되고 내가 반응하게 됩니다.
자식을 보면 야단치게 됩니다, 정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죽은 자는 생각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고, 죽은 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바깥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안쪽에 계시는 천국, 천국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만 삽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향합니다.
이제야 정답을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향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바깥세상에 대해서.
몸을 살게 되는 이 바깥세상에 대해서, 바깥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낮아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낮춤 때문에 얻어지는 의라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네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행동자체가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칭의의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게 답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주어질 때에, 초인적인 온유함도 보일 수 있고, 초인적인 강인함도 보일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덕목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신앙의 인격이 이 세상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낮춤은 하나님 한분 앞에서 만의 낮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답을 듣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왕 앞에서 조차도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하시고, 스테반처럼 아무리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도 포용할 수 있는 초

인적 온유함도 나타날 수 있는, 하늘의 아들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